

카드 한장으로 구매도 하고, 딸들에게 희망도 선물하세요!

“딸 것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한카드

신한카드에 가입하면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많은 분들이 신한카드를 통해 한국여성재단을 응원해 왔습니다. 모인 기금 전액은 성차별 해소와 평등문화확산캠페인, 여성폭력예방, 빈곤해소 등을 위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뜻 깊은 기부로 여성들에게 더 큰 희망을 선물하세요.

참여방법

포인트로 기부하기(일시/정기)

신한카드 가입 ▶ ① 신한카드 사이트(www.shinhancard.com) ‘아름포인트’ 기부 선택
② 아름인 사이트(www.arumin.co.kr) 로그인 ▶ ‘기부하기’ 선택 ▶ 포인트 조회 ▶
‘한국여성재단’ 선택 ▶ 포인트 금액 입력 ▶ 기부하기 완료

카드결제로 기부하기(일시/정기)

신한카드 가입 ▶ ① 신한카드 사이트(www.shinhancard.com) ‘아름포인트’ 기부 선택
② 아름인 사이트(www.arumin.co.kr) 로그인 ▶ ‘기부하기’ 선택 ▶ ‘한국여성재단’
선택 ▶ 기부금액 입력 ▶ 기부하기 완료

※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 10년을 함께 해주세요

2009년은 한국여성재단이 창립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기부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 10년은 보람과 기쁨의 길이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과 함께, 여성활동의 현장에서 배우고, 일하겠습니다.

★회원이 되는 방법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에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나눔참여를 클릭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나 메일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후원계좌 예금주:(재)한국여성재단

국민은행 079-01-0405-971 농협중앙회 369-17-005283 우리은행 500-050638-13-001
(재)한국여성재단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tel. 02-336-6364 fax. 02-336-6459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2009 가을호 Vol.007 딸 것들에게 희망을

특집 돌봄공동체 ‘마을공동체’

기획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다
글로벌리포트 성매매 NO! 호주NGO들의 반성매매 활동현장을 가다
한국여성재단 10주년 특집 오한숙회가 만난 사람 수다톡 TALK
소신과 헌신으로 여성의 역사를 새로 쓰다,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여성과 짝꿍이 나눌수록 맛있는 ‘행복’을 전합니다, 대상(주)의 사회공헌활동



이 그림은 박재동 화백(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께서 작품기부를 해주셨습니다.

contents www.womenfund.or.kr



04 여는 글 가을 초입에 드리는 기쁜 소식 하나 / 조형(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06 특집 돌봄공동체 ‘마을공동체’
1. 나누며 성장하는 토곡마을 사람들 / 이정은(부산여성회 연제지부장)
 2. 산간오지에 꽃 핀 다문화마을공동체, 누리어울림센터 / 한석주(누리어울림센터장)
 3. 우리동네 친절함 주치의, 안산의료생협 / 한상운(안산의료생협 실장)
 4. 여성커뮤니티, 여성들의 수다가 진화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 채혜원(여성신문 기자)

14 기획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사장 리처드 보아스 박사 인터뷰

18 글로벌리포트 성매매 NO! 호주NGO들의 반성매매활동 현장을 가다 / 이석윤미

22 오한숙회가 만난 사람 수다톡 TALK
소신과 헌신으로 여성의 역사를 새로 쓰다,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28 몸이 말하는 마음이야기 나와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애명상 / 왕인순

30 천만 개의 기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나눔이지요 / 김경숙

32 고양이 손 아줌마DJ의 세상만나기, 마포FM공동체라디오 권금상 DJ

34 여성과 팡팡까다 나눔수록 맛있는 ‘행복’을 전합니다, 대성(주)의 사회공헌활동

38 문화향기 나의 즐거운 여행이 지구를 병들게 한다면?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 서선미(여행협동조합 MAP)

42 여유와 공감 공감_ 타인에 이르는 가장 선한 길 / 김형경(소설가)

47 재단통신 여성재단, 삼일투명경영대상 여성부문 대상 수상
여성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신청단체 방문기
‘다문화다함께’ 사업보고대회, 무지개빛축제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지원프로젝트 ‘위드멘토’ 졸업식
이주여성친정방문 날(NAL)자, 10월 태국을 향해 날(NAL)다!
따뜻한 도움, 너무 소중한했습니다! 여성건강지원사업사례

51 김현아의 인세나눔 <그녀들에 대한 오래된 농담 혹은 거짓말>

52 신한 아름스카드와 함께 하는 기부캠페인



한국여성재단 출범의 주역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최초의 여성헌법학자로 평생을 여성인권육성,
여성발전을 위해 일해 온 영원한 언니이다.

〈재〉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은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세기를 살아갈 우리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계간 딸들에게 희망을 가을호
발행일 2009년 9월 30일 통권7호
발행인 조형 편집인 강경희
편집위원 김혜련 로리주희 박미라 이유진 정박미경
표지촬영 조세현(재능기부)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 B/D 5층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편집디자인 (주)인투그래픽
등록일 2006년 2월 6일
등록번호 서울바03609

가을 초입에 드리는 기쁜 소식 하나

글/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기쁜 소식으로 이번 호를 열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일, 삼일회계법인의 삼일미래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비영리단체 투명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저희 재단이 여성부문 대상(大賞)을 수상했습니다. 사업과 재정회계 등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공인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를 성원해 주신 개인, 기업 후원자님, 그리고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를 믿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조직, 특히 공익재단에게 투명성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이니 이번 수상이 큰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조직의 성격과 규모에 관계없이 투명경영의 중요성을 일



깨우고 격려하는 상이 제정된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비영리 민간조직들의 투명경영 노력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과 시장, 시민사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에너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공익활동을 위한 모금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이번 수상은 저희 재단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주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익재단으로서의 명예를 지켜갈 것입니다. 또 한 재단의 모든 기부자님, 파트너 단체들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는 12월 6일로 저희 여성재단은 창립 10돌을 맞습니다.

이번 가을 호에서는 10년 전 그 때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창립 준비에서부터 저희 재단 모금사업의 발전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여성재단이 창립 당시의 각오와 열정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올 10년은 어떻게 다를 것이며, 어떻게 바람직한 변화를 추동해 갈지에 대해 소중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재단이 ‘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고 했다면, 앞으로 10년은 ‘딸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세상과 나누어 행복해지는 힘’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단과 함께 하신 많은 분들께 겹쳐히 듣고, 더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가족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풍성한 가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W

이윤과 경쟁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의 한가운데서 경쟁을 넘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를 소개한다. 서로 다른 모습의 마을공동체이지만 이들에게서 신뢰와 헌신, 소통과 긍정이라는 공통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서로 돌보며, 희망을 키우는 ‘마을공동체’.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마을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나누며, 성장하는 토곡마을 사람들

글/이정은 부산여성회 연제지부장



마을에서 여성들을 만나보면 아이 키우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고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문제가 엄마 혼자만의 몫으로 생각되어지고 그 책임으로 힘들어 하기도 한다. 어떤 유치원을 보낼지,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 일을 하게 되면 믿고 맡길 곳은 어디일까 등 마을의 돌봄과 교육에 대한 정보를 서로 알고 싶어한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마을에 좋은 교육환경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엄마들이 모이게 되었다.

“토곡좋은엄마모임”. 처음에는 예비학부모교육, 자녀와의 대화법, 적극적인 부모역할훈련 등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교육도 하고 엄마들이 직접 준비한 체험놀이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문화센터나 전문 체험프로그램에 아이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놀이터로 엄마가 직접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행하니 아이들이 더 즐거워하고, 편안한 체험활동이 되었다. 아이들도 엄마들도 만족도가 높았다.

여성들, 마을의 리더가 되다

〈토곡좋은엄마모임〉을 2년 정도 진행하면서 회원들도 많아지고, 모임과 교육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회원들의 힘을 조금씩 모아 자그마한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엄마들의 자유로운 공간이 생기니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더 많은 지역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엄마들의 능력을 모아 품앗이 교육을 하면 아이들에게도 좋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어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엄마들은 선생님이 되고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은 아이들의 간식과 공부방 청소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마을 품앗이 공부방을 만들었다. 공부방강사단회의, 학



부모모임, 어린이회의 등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수업내용도 함께 점검하며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공부방을 운영한다.

맞벌이가정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들에게 공부방 이용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며 마을의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기초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엄마들이 노인학교 강사양성교육, 생태안내자양성교육, 양성평등강사양성교육, 아동체험단진행자양성교육 등의 실력 향상 교육을 받고 마을구성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노인학교, 아동체험프로그램, 여성진로설계 교실 등을 개설하여 직접 진행하게도 되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각자의 가정 안에서만 머물던 엄마들이 마을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을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을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변화를 꿈꾸며 나누는 마을공동체

엄마들의 성장과 활동들을 보면서 아빠들도 모임을 만들었다. “토곡좋은아빠모임”.

밤이 되어야 마을로 돌아오지만 아빠들도 마을친구를 만들고 싶었고, 마을 일에 참여하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 아이와 함께 체험놀이를 진행하기도 하고 아빠학교를 만들어 자녀와의 대화법, 부부의사소통 훈련 등을 배우고, 마을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행사들이 많이 생겼다. 5월5일



산간오지에 꽃 핀 다문화마을공동체, 누리어울림센터

글/한석주 누리어울림센터장



월악산 자락 충주호를 돌아 아름다운 드라이브길 36번 국도를 따라가면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 다다른다. 이곳에 오면 행복하고 평화로운 대안적인 지구마을공동체를 꿈꾸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누리어울림센터를 만날 수 있다.

이곳 덕산면은 제천시로부터 자가용으로 1시간 10분, 충주로부터 50분 걸리는 오지이다. 산의 8부 능선까지 밟으로 개간하여 브로콜리 등의 양채와 약초를 주산물로 하는 전형적인 산촌형 농촌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32%를 차지하고 있다. 월악산과 충주호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육문화 환경때문에 학령기의 청소년들은 집안 형편만 되면 인근 도시인 청주, 충주, 제천으로 전학을 가는 마을이었다.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비인가 대안학교인 제천간디학교가 이전해오면서부터이다. 간디학교의 운영법인인 간디공동체는 단순히 학교를 넘어 삶터가 곧 배움터가 되는 상생의 지역공동체 마을을 목표로, 이주해오는 부모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농촌공동체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교가 지역 속에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대안적인 공동체 삶터를 실현하여 마을이 오히려 학교를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 농촌공동체 복원을 꿈꾸다

출발은 마을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노력봉사, 미용봉사 등으로 시작했다. 2005년부터 지역의 방치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을 열었고, 지역에 27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한글학교도 운영하였다. 2007년부터는 유명무실한 지역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난장문화를 기획, 운영하여 덕산면의 명물로 만들어 나갔다. 이런 활동을 통해 농촌공동체의 복원과 대안적인 마을 건설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의 자립적인 순환, 경제의 복원이 필수적임을 깨달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간디교육연구소를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새로운 교육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농촌공동체는 농촌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이 자긍심을 회복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농촌 신부의 40%가 결혼이주여성이고 이들의 자녀가 농촌 학생의 50% 이상이 될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미래 농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들 문화가 농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지구화시대의 다문화사회가 될 때, 농촌의 미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공동체

다문화가족이 마을에서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역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며 그들의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마을 공동체형 다문화센터인 '누리어울림센터'가 만들어졌다. 현재 제천시 덕산면, 수산면, 한수면에는 30명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35명이 살고 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를 맞아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으로 마을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며 노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배움과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2세들을 위한 공동육아 방식의 다문화 어린이집인 '누리자람어린이집', '누리꿈터공부방', 마을 사람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의 샘물인 '누리작은도서관', 결혼이주여성과 마을 사람들이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공간인 '누리배움터'가 운영되고 있다. 시부모, 남편, 자녀 등 가족구성원의 정서치유를 위한 미술음악치유교실, 상호이해와 갈등해결 프로그램운영,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언어치료교실, 다문화 수다의 날, 임신육아교실, 다문화남편모임 등이 다양하게 진행중이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한국여성재단 후원으로 다문화 가족 27가구가 3박4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늦은 신히여행 겸 가족워크숍으로 자녀들도 함께 해서 더욱 뜻 깊었다. 제주도 여행 후 남편들의 협조와 이해가 높아져 농한기에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

국의 아내나라 언어배우기교실, 자녀교육특강, 부부교실 등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일꾼으로 성장

결혼이주여성들이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여성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가 본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도움과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점에 착안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1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채용하여 프로그램 참여 등 자기 실현의 기회를 주고 있다. 옷만들기, 천연화장품만들기, 세정제만들기, 요가, 풍물교실 등을 열어 마을의 다른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4, 14, 24일에 열리는 재래시장에서는 알뜰시장 운영, 다문화음식부스 운영, 다문화놀이판 운영, 원어민 마을외국어강좌 운영, 마을 교육기관에 다문화교실수업 운영 등을 통해 마을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발전했다. 앞으로 이들을 위한 쉼터와 상담실의 운영, 자립을 위한 제과제빵실, 다문화 카페공간 마련을 목표로 기금과 공간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 9월29일에는 서울의 베들레헴어린이집, 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가정지원 실무자를 초청하여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보육문제를 점검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은 농촌마을 5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행복을 일구며 살아가는 길을 찾고자 한다. W

우리동네 친절한 주치의, 안산의료생협

글/한상운 안산의료생협 실장



한국 사람에게 병원은 판검사만큼이나 두려운 존재이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제발 큰 병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행여 가족 중에 중병 걸린 이가 있을라치면 그 가족은 5분대기 상태로 돌입한다. 우선 병원비가 걱정이고, 대학병원에 아는 사람 있는지 찾아 줄을 대어 병실예약도 해야 하고, 돈을 벌지않는 사람은 병수발을 준비해야 한다. 치료받아야 할 때가 되어서야 아픈 사람도, 고치는 사람도 부랴부랴 움직이는 것이 한국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물론 모든 비용은 아픈 사람의 몫이지만…….

‘헌신’과 ‘십시일반’이 만들어낸 의료생협

“생활의 필요를 협동의 힘으로 해결한다.” 이 말은 (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한국 사람에게 협동조합이라면 ‘농협’이나 ‘수협’ 정도를 생각할 지 모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협동조합이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직이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세계적 유통회사를 내보내고, 매장을 인수할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경우도 있다. 우리식 표현으로 ‘십시일반’의 정신이 자본을 이긴 경우이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의료와 건강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예방, 소모임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공



동체를 만들어나가는 협동조합이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생협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했던 안성의료생협이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의료생협에 비하면 이제 걸음마를 마치고 걷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협동조합의 모양새를 갖춘 의료생협이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있지만 비영리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하는 한국의료생협연대 소속의 의료생협은 12개이다.(안성, 인천, 안산, 서울, 대전, 함께걸음, 원주, 용인, 성남, 수원, 전주, 청주와 함께 현재 제주도와 시흥시에서 준비 중에 있다) 모든 의료생협이 그래왔듯, 안산의료생협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의료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진료를 맡고 있는 원장선생님은 1999년 발기인대회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안산의료생협에 바친 산증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면 적어도 한번쯤은 개원해서 멋지게 ‘큰돈’ 벌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텐데,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의료생협에 헌신해준 덕에 많은 주민들이 그를 찾아 대학병원도 아닌 이곳 새안산의원까지 온다.

‘몸’ 건강만큼 ‘마음’ 건강도 처방

병원에는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꼭 병원에 가야할 때, 내 집처럼 편안한 병원이 있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다. 의료생협 병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라지비염 강의하고 있는 원장선생님

원이 바로 그런 병원이다. 의사도 조합원, 간호사도 조합원, 환자도 조합원이다. 그리고 병원의 주인도 조합원이다. 의료생협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병원운동을 통한 수익을 어느 한사람이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생협 병원은 환자에게 더 오래 설명해 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장애인도, 외국인노동자도 와서 치료 받고 상담받을 수 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는 안산의료생협의 주요 모토중 하나이다. 치료의 고통보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산의료생협은 병원운영 만큼이나 각종 보건예방, 건강진찰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지역주민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성건강학교, 초경학교와 같은 건강학교, 알라지 테스트, 고혈압 당뇨모임 등의 건강모임, 걷기 요가 등 각종 건강소모임을 통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각 의료생협간 의사모임에서는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질병 50가지를 선정, 생활처방전을 마련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생협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도 몸건강 만큼 중요하다. 마음에 근심이 없고 즐거우면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거나 지원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건강한 만남과 활발한 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군더더기들을 해소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지름길이자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이다.

많은 소모임 활동 중의 백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노인정과 거리에서 건강 체크할 때, 어르신 요양봉사, 조합행사 등 온갖 곳을 일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칭찬을 받는다. 지난 여름의 일이다. 고등학생 20여명과 학부모 등이 자원봉사활동을 요청해왔기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팀을 나눠 현장에 나간 적이 있다. 요양 대상 어르신들은 문화예술 자원봉사 학생들의 악기연주를 들으며 한 평생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당신만을 위한 연주에 무척이나 감동하셨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처음 경험하는 보람에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으로 느낀다. 병이라는 것이 꼭 약으로만 치료되는 것은 아니리라.

정직하고 건강한 의료공동체를 꿈꾼다

우리 안산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의료생협인들의 고군분투는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 의료인들의 헌신, 농촌 주말진료소 활동,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각 지역에서 소박하게 시작했던 의료생협운동은 지난 10여 년간 힘든 시기를 지나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수천 명 이상의 주민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조직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업활동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 인증을 받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는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평가단에 의료생협 사람들을 반드시 포함시킬 정도로 의료생협의 사회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생협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의사의 역할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현실에서 좋은 의사선생님을 만나는 일부터, 공동체적 가치와 사업운동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의료생협의 구조적 특성 사이에서 옳은 길을 찾아야 하는 문제까지, 걱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료생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꿈을 꾸고 산다. 하나는 돈으로 1인실이 결정되지 않는 정직한 병원을 우리도 가져보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작은 힘이 합쳐져 자본에도 맞설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W



‘여성 커뮤니티’ 여성들의 수다가 진화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글/채혜원 여성신문 기자



2008년 줌마네 (아줌마 인문학 캠프)

사이버공간에서의 공동체 중 하나인 ‘여성 커뮤니티’는 수다로부터 시작됐다.

과거 공식적 지위를 가질 수 없었던 여성들에게 ‘수다’는 의견을 여론화시키는 유일한 통로였다. 이 수다는 여성담론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고,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여성커뮤니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부터 온라인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여성 포털’들이 탄생됐다.

촛불정국과 여성커뮤니티

지난해 여름 촛불정국에서 위력을 발휘한 여성커뮤니티는 여성들만의 정치담론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행동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표적으로 여성포털 마이클럽(miclub.com) 시사방 회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활동을 위한 성금을 모아 촛불집회 현장에서 라면과 생수 등을 지원해왔다. 당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격려광고를 냈으며 ‘언론자유를 위해 힘써달라’며 기자들에게

간식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2002년 개설된 요리 전문사이트 ‘82 쿡닷컴’ 여성회원들은 조선·중앙·동아 구독반대운동을 이끌었다. 11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리스트를 자유게시판에 올려놓고 항의전화를 하는 등 새롭게 운동을 주도한 것이다.

황정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여성커뮤니티 진화의 의미에 대해 “지난 촛불정국 속에서 아고라를 비롯한 여성커뮤니티 등의 온라인 공간은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발언하는 새로운 통로로 재발견됐다”며 “커뮤니티를 통한 여성들의 정치연대행동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직접적인 실천이자 생활정치활동”이라고 분석했다.

여성 커뮤니티는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뭉친 영 페미니스트들의 새로운 운동공간으로도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0년 여성들이 언니를 만나 이야기하듯 편안하고 부담 없는 사이버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언니네(www.unninet.net)’는 대표적인 여성주의 커뮤니티다. 여성주의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자기만의 방’을 비롯한 동호회 서비스가 활발

하게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섹슈얼리티, 성매매, 페미니즘 이론 등 다양한 글을 모아놓은 ‘자료창고’도 꾸리게 된다. 대안적인 여성공간으로서 의미를 인정받은 언니네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주최한 보존해야 할 인터넷 문화유산으로 선정돼 ‘정보트러스트 어워드 2005’를 수상하기도 했다.

영페미니스트의 소통공간

대부분 20~30대의 영 페미니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언니네 활동에는 ‘기존 틀’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제안이 큰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언니네트워킹 페미니즘 캠프’,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혼자들의 축제 ‘비혼여성축제’, 그간 기록되지 않았던 여성 게릴라 운동이나 이슈를 전시와 다양한 공연으로 풀어내는 ‘액션박람회’ 등은 모두 ‘언니네’ 이기에 가능했던 활동이다. 언니네는 오늘도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오노 요코의 말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타일’이 여성들의 화두인 만큼 여성들은 온라인쇼핑몰 안에서 일상을 공유하며 친목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일이 곧 자신을 찾아가는 또 다른 과정인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스타일에 맞게 비슷한 감성을 공유하게 된다. 그녀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은 단순히 옷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다. 이 커뮤니티 안에서 여성들은 각자 구매한 옷을 자신만의 색깔로 스

타일한 모습을 뽐내기도 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오프라인 모임을 추진해 개인적인 인맥도 형성한다.

대표적인 커뮤니티는 옷을 읽어주는 여자가 있는 따스한 공간 ‘프롬제이(www.fromj.co.kr)’다. 프롬제이에서 여성들은 ‘프렌즈(FRIENDS)’라는 게시판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다. 비정기적으로 오프모임도 갖고 있으며 ‘J와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매월 10명의 아이들에게 20만원씩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몇 차례에 걸쳐 미혼모 시설에 옷을 보내기도 했다. 손현주 프롬제이 대표는 “사이버 공간은 자칫 가벼워 보이기 쉽지만 프롬제이를 통해 연대와 소통의 장을 만들고 공감대를 나누게 되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우정과 환대의 공간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는 ‘우정과 환대의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들이 페미니즘 이론을 새로운 단계로 이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우정과 환대, 보살핌의 시공간’은 ‘언니’들과 ‘여동생’들이 만들어가는 대안적인 시공간이다. 언니들과 여동생들이 시대의 아만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던 침상과 식탁 자리를 되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남성들이 폭력적이지 않았고, 아이들이 마을의 보살핌을 받고, 노인들이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다.

조한교수는 매년 여름에 열리는 줌마네(www.zoomanet.co.kr)의 ‘아줌마 인문학 캠프’에서 대안적인 시공간의 가능성을 엿보았다고 전했다. 여성 커뮤니티 ‘줌마네’에서 주최한 이 캠프에는 옹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만큼 좌표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전국의 아줌마들이 모여 함께 인문학 강좌를 듣고, 글을 쓰고, 문화 공연도 여는 시간을 갖는 자리다.

이숙경 줌마네 대표는 “남편, 아이, 노인, 옆집 아줌마 등 다양한 인간관계의 중심에 선 ‘개인 아줌마’들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응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공부하고 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연대의 장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 등을 토닥여주며 새로운 자신을 깨달은 아줌마들은 캠프가 끝난 뒤에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사장 리처드 보아스 박사 인터뷰

취재/신미숙 기획홍보팀장 통역/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코디네이터



22년 전 한국에서 딸을 입양한 미국의 녹내장 전문가가 이제는 한국에 '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설립하고, 1년에도 몇 차례씩 양국을 오가며 미혼모지원사업에 열정을 쏟고 있다. 우리 사회의 그 무엇이 그의 노후를 미혼모지원운동가로 살게 했는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이사장 리처드 보아스 박사(59)에게 직접 들어보았다. 뻔뻔한 일정으로 점심식사도 포기한 채 인터뷰에 응해 준 보아스 박사는 '미혼모 문제는 아이와 어머니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수 차례 강조했다. -편집자 주-

‘너’를 위한 입양?

입양을 강요당하는 한국의 어린 엄마들

평범한 안과 의사, 입양부모에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한국의 ‘미혼모지원사업’을 하기까지 남다른 삶과 활동 계기가 궁금합니다.

22년 전, 한국에서 딸을 입양하면서 한 생명을 고난의 미래로부터 구제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웬지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미국에서 국제입양가족지원을 위해 ‘입양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 10월, 한국을 방문하여 미혼모시설을 방문했는데 10여명의 10~20대 미혼모 모두가 양육포기 각서를 쓰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혼모 지원기관에서조차 입양은 ‘너를 위한 선택’이라는 식으로 엄마들을 설득시키고, 아이를 입양시킨 미혼모들은 엄청난 심리적 자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입양이 엄마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딸의 엄마도 이런 고통 속에서 아이를 입양시켰겠구나. 내 딸도 한국에서 이런 처지였다면, 같은 선택을 했겠지?’ 제 딸의 엄마는 24세 때 군인과 사귀었고, 헤어진 후에 임신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후에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직장생활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얘가지요. 왜 이 여성들은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가? 결혼을 했던 안했던, 세상에 어떤 여성이라도 자신이 원하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하는 하는데……. 아이 뒤에서 고통받는 엄마들(미혼모)이 있다는

사실을 알자, 입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입양아와 새로운 가족 사이에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동등한 구성원, 미혼모

우리가 하는 일은 미혼모들의 입양을 반대하거나, 아이는 낳은 엄마가 반드시 키워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모에게 입양에 관한 정보, 양육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전하고 양육을 선택했을 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와 가족이 지원하고,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입양에 관한 이슈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 아동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하면서 2008년에 한국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육과 결혼여부는 별개, 미혼모 문제는 아이와 어머니의 인권 문제

유독 한국에서 국제입양을 많이 시키는데,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미국은 미혼모의 2%정도만 아이를 포기하는데, 한국은 70%이상이 아이를 포기합니다. 비슷한 동양문화권이면서 국제입양을 많이 시키는 중국은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지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유교적 부계혈통, 아버지의 혈통과 다른 아이는 키울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입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결혼여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외국에서는 모두 의문을 갖게 되지요.

입양가족의 행복은 생모와 자녀가 헤어지는 슬픔이 전제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민주국가이고, 경제력도 있습니다만 미혼모들은 동등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가족의 정서적인 지원도 받질 못하는 형편입니다. 많은 가족정책에서 미혼모들은 왜 소외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구요.

미국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70%이상의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하기까지 미국사회의 노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미국은 미혼모, 한부모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싱글맘'이라고 하는데, 결혼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1960년대 히피, 인권운동 등 사회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운동도 성장하면서, 성에 대한 관념도 현실적으로 바뀌고, 성을 터부시하던 개념이 변화하였지요. 여성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1972년에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임신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에서 '싱글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지요.

미국은 무엇보다도 아동정책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엄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혼모와 아이 문제도 이런 선상에서 봐야 하며, 한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혼모-엄마의 권리, 미혼부-아버지의 책임

아이의 남녀의 공동책임으로 '미혼부'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지요. 남녀가 같이 사귀었는데, 남자만 자유로운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남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성에 대한 이중 잣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미혼부'의 책임과 권리면에서 법적, 사회적 환경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버지가 아이의 존재를 인식하는 경우 바로 친권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DNA테스트 등을 통해 생부가 확인될 경우, 양육비 강제청구 등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강제청구, 면허취소 등 제재도 가합니다. 엄마와 아이를 동일체로 보는 대신 아빠는 노력의무가 부과되는 거지요. 양육비, 시간 투자 등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해 보여야 하고 공동양육권, 친권계산법에 따라 아버지의 경제적 책임분을 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서 보는데, 이는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에 정서적으로 개입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도록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미혼부, 남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하고요.

미혼모 지원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양육 선택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미혼모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와 여성재단에 바라는 점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이와 미혼모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경향도 있는데, 본질은 엄마와 함께 할 아이의 권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권리의 문제입니다. 통계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재단에 바램이라면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을 따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미혼모'와의 연관성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대중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화제, 배너달기 등 미혼모와 관련된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을 개발, 보급하고 '미혼모'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을 조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혼모'들의 조직화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에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입양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양육을 선택할 경우에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보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미혼모'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날 인터뷰에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앨런 페나리 고문도 참석하여 한국의 미혼모지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W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리처드 보아스 박사가 2008년에 설립하였다.
2008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미혼모 복지현실>에 관한 연구지원활동을 포함, 미혼모지역사회 센터건립 등, 미혼모여성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미혼모 여성의 인권교육, 조직화, 지원정책 확대 등 미혼모문제의 사회적 공론화에 공감하는 모든 이들과의 연대,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성매매 NO!

호주NGO들의 반성매매 활동현장을 가다

글/이석윤미(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활동가)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한국 사회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인식의 확산과 여성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사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과 러시아 등지로부터 한국의 성산업에 유입되는 여성이 늘고, 한국 여성들도 일본, 미국, 호주 등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 또한 한국남성의 성구매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어 작년 한해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한국 남성 498명이 해외 성매매에 연루되어 검거되었다. 최근에는 여고생 등을 포함한 100여명의 여성을 일본과 괌의 성매매 업소에 인신매매한 사건이 밝혀지는 등 성매매는 전 지구적으로 산업화되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 부자 나라의 남성에 의해 소비되는 성산업의 세계화는 새로운 성식민지의 양상을 띠고 있다.

산업화와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전 세계의 업주, 브로커와 성구매자들은 발 빠르게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국내외 NGO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그 실태조차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제 성매매의 세계화, 산

업화는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와 소통의 한계를 넘는 전지구적 네트워크 형성이 절실하다.

나는 한국여성재단의 '글로벌여성리더십육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올해 2월부터 호주에서 어학연수와 반성매매관련 단체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 연수국으로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단속의 어려움과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1984년 빅토리아 주를 시작으로 세계 최초로 성매매 업소를 합법화한 후 포괄적·지속적으로 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 NGO와 학계에서는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산업 뿐만 아니라 아동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호주의 성매매 합법화의 폐해와 이에 대응하는 NGO와의 연대를 통해 각국의 사례와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반성매매 활동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나의 연수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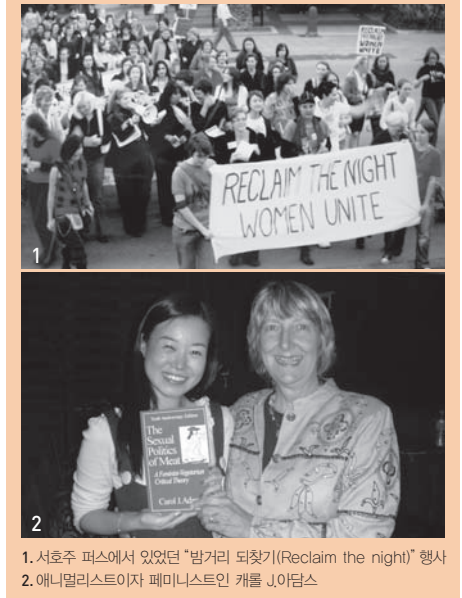
이제 성매매의 세계화, 산업화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와 소통의 한계를 넘는 전지구적 네트워크 형성이 절실하다.

... 성매매 합법화에 대응하는 호주 NGO의 활동 필자는 멜버른 소재의 CATW-A(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Australia, 여성인신매매반대 연합-호주)와 프로젝트 리스펙트(Project Respect, 이하 PR)라는 두 NGO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

CATW International은 1998년부터 성착취에 맞서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여러 지역과 유엔 및 국제 차원에서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 사안들을 변화시켜오고 있으며, CATW-A는 아시아지역 지부 중 하나이다. CATW-A는 멜버른대학의 셰라 제프리스(Sheila Jeffreys)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페미니스트 조직으로, 성착취와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우편 주문 신부,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와 성착취에 대해 국제적 인식 확산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탈성매매 여성 보호와 프로그램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대정부 활동 등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성구매 남성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최상의 사례는 한국 성

매매방지법의 모델이 되었던 스웨덴 모델과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이다. 특히, 한국의 방지법은 성매매여성 지원정책의 구체성과 체계성에 있어서 최상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CATW-A가 연구와 로비 활동을 통한 정치적 변화를 모색한다면, PR은 직접 성산업종사 여성을 만나 지원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1998년에 설립된 PR은 빅토리아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산업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착취와 노예화 문제에 집중하여 인신매매된 여성이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주요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다.

PR은 남녀간, 문화적 차이와 계급간의 학대와 불평등은 성산업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탈성매매 여성이 자원 활동가로 참여하여 그들의 전문가적 의견에 기반하여 직접 아웃리치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지역사회 의식향상 교육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메시지는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수요를 차단하고 근본적으로 성산업을 지탱·유지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종식하자는 것이다.



1. 서호주 퍼스에서 있었던 "밤거리 되찾기(Reclaim the night)" 행사
2. 애니멀리스트이자 페미니스트인 캐롤 J.아담스

성매매 여성들의 처지는 성매매 합법, 불법을 떠나 착취와 학대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따라서 PR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한국단체에서 제공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PR은 여성에 대한 판단과 조건을 불문하고 섹터 제공, 비자·가정폭력·약물·알코올·자녀 문제에 대해 전문적 서비스연계, 건강관리, 법률지원, 보상,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대안적 일자리 제공 등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 • • 성매매합법화가 불러온 범죄 증가와 정부의 수습책

호주 내에서의 성매매 지구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대에는 호주 남성들의 섹스관광 문제와 우편주문 신부에 대한 폭력 및 살해 사건 등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고, 미국의 조직범죄와 연관된 스트립클럽 체인과 포르노 산업으로 유명한 래리 플랜트의 US허슬러 체인클럽도 영업을 하고 있다.

호주의 성매매 규제법은 정부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후, 등록된 업소와 에스코트 에이전시를 합법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미등록 업소나 거리 성매매 등은 불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합법 업소는 시내에 인접한 외곽에 주로 위치하며, 이들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고, 무료로 배포되는 지역 신문에 업소와 에스코트 에이전시 광고를 게재하기도 한다. 광고에서는 ‘18세’, ‘아시아 소녀’ 등의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여성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또 공급되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합법화 이후 건강 등의 이유로 합법 업소에서 일할 수 없는 취약한 여성들은 불법 거리 성매매로 유입되고, 성구매자에 의한 폭력과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들이야말로 성매매 합법화가 여성 인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거리 성매매로 유명한 곳은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세인트 킬다(St. Kilda)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해변이지만, 노동자들이 퇴근하는 3시부터는 거리 성매매가 성황을 이룬다. 이곳에는 경찰 추산으로 15명의 청소년을 포함한 300명의 성매매여성이 있다고 한다.

유학생들과 관광객들도 호주의 성매매가 합법이며, 스트립클럽과 성매매 업소, 에스코트 에이전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이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며, 이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호주를 찾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즉,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등 전반적으로 성문화 태도를 변화시켰다. 따라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 성매매와 인신매매 확산, 피해 여성의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퀸즐랜드대학 연구팀은 성매매 규제법이 시행된 지 10년 동안 퀸즐랜드주는 성매매 업소를 정부의 규제하에 두고자 하였으나 이미 실패하여 성산업의 90%가 여전히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피해여성들도 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호주정부는 2009년 6월에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전략을 개정·발표했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귀국 후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증인보호프로그램과 영주권확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호주 내에서 발생한 피해 경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십자를 통해 최소 45일 동안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즉, 지금까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와 기소 문제에서만 관심을 두던 여성들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 것이며, 향후 피해자 안전 보장을 위한 사회전반의 인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다양한 지원 단체와 만나 안전을 확보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조치

한 매우 중요한 성과이자 변화이다. 이 곳 NGO 역시 이 정책을 통해 더욱 많은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 • 반성매매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 그리고 활동가로서의 나

CATW-A와 PR에서 시작한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여성과 활동가의 안전을 위해 한인 여성이 있는 업소에 아웃리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애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는 않았다. 대신 한인 성매매 피해 사례를 접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PR과 한국 단체의 연계를 돕는 빅토리아주 한인회, 구세군국제학생프로그램, 빅토리아여성센터 등을 방문해 프로모션 활동을 함으로써 정보수집과 네트워크 확장에 더욱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CATW-A에서 주최한 세인트 킬다 주민모임과의 미팅, 정부의 지원으로 섹터사업을 준비 중인 적십자방문, 인종차별과 다문화주의, 애니멀리즘과 포르노그래피 등의 강연회와 포럼을 통해 한국의 상황과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여성주의자들을 만나 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언어를 배우고 있는 단계에서 연대 활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언어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주제에 대해 고군분투하기 때문인지 오히려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 한가롭고 아름다운 세인트 킬다 해변을 보면서 ‘거리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생각부터 드는 ‘직업병’이 싫을 때도 있지만, 이곳에서 엮어가는 네트워크는 활동가로서의 높은 자부심과 자원을 획득하는 보람된 날들이다. W



1, 2. 스트립 클럽이 밀집되어있는 킹스트리트의 멘즈 갤러리들
3.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세인트 킬다 해변, 남성들에게는 거리 성매매로 더 유명한 곳이다.
4. 프로젝트 리스펙트 회원들

한국여성재단 창립 10년 특별인터뷰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소신과 헌신으로 여성의 역사를 새로 쓰다

글/오한숙희 사진/한경은

“그것 참 신기한 일이야.”

인터뷰를 가기 전에 늘 그렇듯이, 이번 호의 주인공인 윤후정 선생에 관한 자료를 읽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무려 730억 원에 달하는 대학발전기금을, 그것도 2년 만에 모아내셨다니, 아니, 세상에, 평소 그렇게 말수가 적고 오갈 데 없는 ‘훈장님’ 분위기의 선생께서 이렇게 ‘세일즈’를 잘 하시다니.

뵙자마다 대뜸 그것부터 여쭙었다.

“아니, 어떻게 모금을 그리 많이 하셨어요?”

선생께서는 계면적으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해도 그것 참 신기해. 나는 원래 숫기가 없어. 사람과 친화적인 제스처가 없는 사람인데 주는 거 하나없이 남의 생돈을 달라는 거 아니우?”

작고한 현대그룹 정주영회장에게 100억을 받아내신 이야기가 가장 궁금했다.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부터 찾아간 거지. 그런 사람들 만나자면 만남을 이루기까지도 보통 어려운 게 아냐. 비

서실장, 전무 이런 사람 만나야 소용없어, 최고 수장을 만나야지.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나서는 워낙 바쁜 사람들이니까 이런 저런 잔소리를 길게 할 수 없어. 15분 정도 말한 거 같아. 요점만 정리하기 위해 자료를 씹고 또 씹어서 핵심만 전달한 거지.”

15분에 100억이라! 더구나 그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문학소녀, 100억을 모금하게 된 열정

“처음 말할 때는 등골에서 진땀이 났어요. 내가 남성에게 호감 줄 스타일도 아니고, 하하.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는 건 내가 아주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호소했다는 거야. 다행히 내가 찾아간 사람 중에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IMF 나기 전이라 시기적으로 운이 따랐고,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교직원들이 모두 함께 한 거구.”

아무리 경제상황이 좋다고 해도 ‘생돈’을 쉽게 내놓을 리는 없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선생을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모든 단체, 기관, 개인은 무엇을 하려면 우선 비전, 플랜,





백년 가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는 기적이 아니라 원칙에 충실한 공법의 당연한 결과이듯, 선생이 ‘참 신기한 일’ 이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 이처럼 정확하고 분명한 성정이 만들어낸 결과였으리라.



〈사진제공 : 이화학당〉

목표(구체적 실천 방법)를 세워야지. 여기에 열정과 헌신을 더하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도 공허한 메아리가 안 되는 법이야.”

선생은 이화여대총장이 되자, 21세기에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100대 과제를 수립하고, 그 실천방법으로 세계화, 정보화, 과학화, 복지화를 정했다. 특히 첨단과학이 21세기의 키워드가 될 것에 착안하여 여대의 단점을 보완코자 공대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정주영회장을 찾아가 ‘통째로 한번 도와달라’ 고 담판을 지어 100억에 달하는 공대건물을 통째로 지어받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냥 생각난 김에 우리나라 제일 큰 부자를 찾아가서 한번 찢어보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조감도(비전), 설계도면(플랜), 공사계획(실천방안)까지 차근차근 세워진 완벽함을 앞세워 열정과 진실로 호소하는데 뉘라서 쉽게 외면할 수 있었겠는가.

법학, 그중에서도 최고의 법인 헌법을 전공하신 분이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몸에 밴 결과가 아닐까 싶었다. 그

런데 선생은 알고 보니 문학소녀였다. 원래 문학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귀순’ (하늘로 돌아가리라)이라는 시도 썼으나 대학진학을 앞두고는 정치학과 철학에 기울었다. 식민지시대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민족적 수난의 설움과 아픔을 겪은 것이 나라를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의지로 자라난 결과였다.

그녀를 이끌어준 인생의 멘토들

그런데 그를 법학으로 인도함으로써 그의 운명을 가른 사나이가 있었으니, 바로 강원룡 목사이다.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여고생 윤후정은 여고시절 특강강사로 왔던 강목사를 떠올려 멘토링을 청했다. 강 목사는 당돌하게 자신을 찾아온 총명하고 정의감에 가득 찬 이 여고생에게 나라를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라면 법학이 더 도움이 된다고 기독교 대학에 진학할 것을 강력히 권했다. 망설이고 망설이다 원서접수 마지막 날 오후 4시 55분에 이대법대를 지원한 그는 거기서 또 한번 자신의 운명을 가르는 멘토를 만난다.

“고시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김옥길 선생님께서 나

를 술발에 얹혀놓고 설득하셨어. 나도 선생님을 설득하려고 꽤 노력했어. 그런데 ‘안 돼!’ 너는 학교에 남아야 돼’ 하시는데 스승을 거역하지 못하던 시대였지. 법조인보다는 대학교육자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신 거 같아. 결국 거기 내가 설득당한 거지.”

그 후로 그는 여성을 잘 길러야 나라가 잘 된다는 신념으로 여성에 대한 애정과 애착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뒷바라지했다(고시공부에 전념하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하여 여성법조인들을 탄생시켰다. 최초의 여성헌법재판관 전효숙도 그 중 하나이다). 개인적으로는 남한테 뭘 달라 소리를 못하는 그가 이른바 ‘세일즈총장’ 을 자임하게 된 것도 여성교육을 위한, 여성을 위한 일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소신과 독심으로 호주제위헌, 남녀차별금지법을 이끌어 내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특위 초대위원장을 맡은 것도 그랬다. 설치법을 보니 일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 정도인데다

가 조직구성조차 되어있지 않은 급조였다. 말이 대통령 직속이지, 국무회의에 발언권도 없는 위치였다. 그는 고사했지만 결국 그 일을 맡자 대통령을 독대하여 세 가지를 말했다.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여성부 창설, 여성정책의 주류화가 그것이었다. 대통령은 ‘100% 밀어주겠다. 소신껏 하라’ 고 했다. 다만 당시가 IMF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터라 여성부는 바로 만들 수 없었다. 1999년 그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도해 국회에서 마침내 통과시켰다.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았다.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여당의원들도 반대하는 거야.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3~4회씩 찾아갔어. 의원실 복도에서 상임위 의원들을 두세 시간씩 기다렸다가 붙잡고 설득했지, 차고에서까지 그랬어. 여성의원들은 협력할 줄 알았는데 실망했어. 여성의원 한명을 두 시간 기다렸다가 설득했어. 나보다 좀 더 스무 살 이상 젊은 의원이었는데 나를 탁 뿌리치고 가버리는 거야. 여성특위가 법안발의권도 없으니까... 수모를 당했지만 여성을 위한 일을 하자니 내 자존심은 내려놓았지.”

그 여성위원이 누구인가. 나는 열이 올라 여쭙었지만 선생님은 손사래를 치시며 다 지난 일이라고 웃기만 하셨다.

남녀차별금지법이 여성의 사회적, 공공생활에서 평등을 보장하는 축이라면 가족법은 사적생활에서 양성 평등을 이루는 또 하나의 축이었다. 가족 내 성차별의 핵심인 호주제 폐지는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가능했는데 여기에도 그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근거가 된 현행 헌법 36조 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 되어야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은 1980년 8차 개헌 때 그가 법대교수로서 작성한 헌법 초안 내용이였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그 당시 보수적인 남성들이 그걸 어떻게 통과시켜 법제화했는지.”

그에게는 ‘신기한 일’ 이 참 많다. 미국 노스웨스턴 법대에서 석사논문 심사를 받던 중 심사위원인 네이션슨(미국 행정법과 헌법의 최고권위자의 한사람)에게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충을 거쳐 박사학위논문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신기한 일’ 이 있었다. 여성재단의 모태인 ‘한국여성기금 추진위원회’ 수석위원장이 된 인연도 ‘신기한 일’ 이고 여성재단의 설립도 신기한 일이다.

“박영숙 이사장은 나와 동기야. 고등학교 때 영리더십에서 만났었는데 대학오니까 또 만나게 됐어. 가깝게 이야기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저런 자리에서 이상하게 자주 만나게 돼. 맑은 사람이고 욕심이나 출세욕이 없어. ‘너 괜찮은 애다’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으로 날 찾아왔어. ‘여성재단 만드는데 너 좀 같이 안 할래?’ 그러기에 ‘그래 해 보자’ 한 거지. 원래 재단은 돈이 있어서 운용을 하는 것인데 돈 한 푼 없이 재단을 세운다는 것은 기적이고 희한한 일이야. 10억 이상 되어야 재단이 되는데 16억을 모아서 여성재단이 출범했어. 박영숙 씨가 애 많이 썼지.”

통합여성상을 제시하며,
모두를 아우르는 여성재단이 되길

2시간 남짓 이야기 내내 선생은 타인을 배려하며 신중하게

말씀하시고 필요한 경우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며 말씀하셨다. 백년 가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는 기적이 아니라 원칙에 충실한 공법의 당연한 결과이듯, 선생이 ‘참 신기한 일’ 이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 이처럼 정확하고 분명한 성정이 만들어 낸 결과였으리라. 유학시절 도서관 의자에 청바지의 파란물이 배어들도록 공부했다니 석사논문이 박사논문이 된 것은 ‘합리적인 기적’ 이었다. 제대군인 가산점 문제를 다루는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이 없이 발언하는 게 정말 죄송한데 내가 여기 온 건 여성문제를 해결코자 함이니 할 도리는 해야겠다’며 ‘군인들의 숭고한 애국심은 달리 보상해야한다’ 는 반대 논리를 펴서 막아낸 것은 원칙이라는 송곳을 배려라는 솜으로 싸서 찌른 성과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헌법학자 윤후정 헌법이 모든 하위법을 아우르듯이 선생은 통합여성상(여성이 개인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동시에 공동체 성원으로서는 정의와 평화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여성재단의 앞날에도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말고 모두 아우르며 나갈 것을, 남녀를 동반자로 보고 여성재단의 의의에 협력해줄 남성들을 많이 만들 것을 주문한다. W

윤후정 herstory

1932년 함경남도 안변군에서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University of Louisville에서 정치학석사과정, Yale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과정, Northwestern University, The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초대위원장을 맡아 남녀차별금지법제정, 군가산점제 폐지를 공론화하는 등 여성부탄생의 기반을 마련했고 1999년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 수석위원장을 맡아 한국여성재단 설립의 초석을 다졌다. 저서로 여성주의 법학 교과서 〈법여성학〉을 출간하는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여성재단 고문,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총장,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으로 재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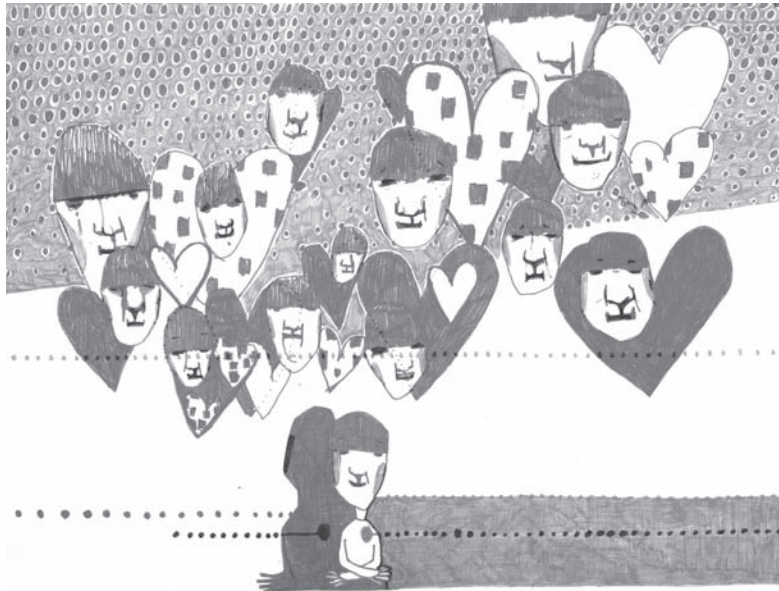
오한숙희 | 친근한 이웃집 아줌마 오한숙희 씨는 여성들의 일상을 ‘수다’로 풀어내 마음의 차유를 돕는 수다전도사이다. 방송과 집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여성재단의 기획홍보위원으로서 발 닿는 곳,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부와 나눔의 행복을 전하고 있다.



나와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애명상

글/왕인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상근활동을 했다. 최근 〈요가프로그램이 스트레스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썼고, 여성들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특이점 | 카이레트그림

바쁜 일상에서 잠깐 ‘혼자’ 서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명상’ 법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마다 나는 자애명상(慈愛觀, Loving-kindness meditation)을 권하곤 한다. ‘자애명상’ 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상의 효과를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가족과 대인관계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명상법이기에 때문이다.

자애명상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애심이 짧은 시간 안에 쉽게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할 때 자애심은 무한대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무량심四無量心(자慈, 비悲, 희喜, 사捨)의 하나이기도 하다.

자애명상은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선정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교의 사마타수행(집중명상)중의 하나인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종교를 초월하여 수행자가 아니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나와 남에게 매우 친절한 수련법 - 자애명상

자애명상은 나의 마음을 자애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아낌없이 보내는 명상법이다. 내 마음을 자애의 마음으로 채울수록, 생명을 지닌 존재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낼수록, 내 마음은 점점 기쁘고 평화롭고 고요해진다. 그리고 타인의 실수나 잘못에 관대해지고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준 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애명상은 나 자신과 남에게 매우 친절한 수련법인 것이다.

나와 함께 자애명상을 수련한 여성들은 얼굴이 깨끗해지고 표정이 환해졌다, 무거웠던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크게 줄어들거나 용서하게 되었다, 억울한 마음으로 인한 괴로움이 줄어들었다, 일상에서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 갈등에 대처하는 유연함이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본의 아니게 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애명상의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보자. 일단 그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반응한다면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 일단 내 몸에서 올라오는 반응들을 알아차리고 자애의 마음을 키워서 좀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더 여유로운 마음의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무척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

자애명상의 순서와 방법

〈용서〉 자애명상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라는 문장을 세 번 반복한다.

〈자신에 대한 자애〉 그 다음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낸다. “내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의 의미에 집중하면서 마음속으로 반복한다. 나의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애를 보내도 좋다.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재능기부를 할 때 내게 물질이나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하듯이, 누군가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내려 할 때도 먼저 나 자신을 자애심으로 가득 채운다.

〈자애 대상의 순서〉 그 다음에 존경하는 분, 가족, 동료의 즐겁고 기쁜 모습을 떠올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애를 보낸다. 명상을 계속 할수록 자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점차 강해지게 된다. 자애 대상의 순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 존경하는 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무관한 사람,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한정된 대상, 사방팔방의 순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다.

〈주의할 점〉 죽은 사람에게는 자애명상을 하지 않는다. 처음 자애명상을 할 때는 무관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나 원한 맺힌 사람에게는 자애를 펼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고, 점차 자애의 마음이 커져 편안할 때 자애를 보내도록 한다. 순서대로 자애의 마음을 보내다가 마음의 힘이 흐려지면 다시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낸 후 명상을 계속 한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애를 보내는 마음가짐이다. 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해보기

● 자애명상과 더불어 자애로운 말과 행위를 병행합니다. 부드러운 말, 화합을 위한 말, 누군가를 돕는 행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재능을 나누는 행위들은 우리의 자애심을 더욱 크게 키워줍니다.

● 걸어갈 때나 휴식을 취할 때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를 향해 자애심을 보냅니다.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걱정하는 사람이나 갈등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주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 하면서 자애심을 보냅니다.

●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자애심을 보냅니다. 예를 들면, 일터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을 향해서도 좋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함께 탄 사람들,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향해서도 좋습니다.

● 모임 시작 전이나 후에 짧은 시간이라도 자애명상을 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참석한 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차례대로 떠올리면서 자애심을 보냅니다.

● 하루 중 내 마음이 불편했던 일이 있었다면,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애심을 보냅니다. 자신에게 자애심을 보낸 후에 그들을 향해서 자애심을 보냅니다.

● 잠이 들기 전에,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짧게나마 자애명상 문구를 반복해봅니다.

● 자애명상 후에 내게 일어난 변화를 기록하면서 성찰해 봅니다.

제 매일 20분만이라도 꾸준히 수련하시길 권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자애명상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라도 실천하길 권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W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나눔이지요

글/김경숙(88골프장 경기보조원,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나의 어린 시절이 가르쳐 준 나눔의 철학

글 쓰는 재주가 워낙 없다보니 약간 걱정이 되네요. 게다가 저보다 더 많이 나눔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기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 저의 아픈 지난날이 떠오르네요. 어린시절 저는 부모님의 경제력으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재로 인해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하고 한순간에 우리식구들은 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집은 밥을 굶거나 좁쌀죽을 끓여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물론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서 점심은 굶는 것이 당연했지요.

제 꿈은 선생님이 되어 작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 꿈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눔을 하게 된 건 선생님의 모습에서 비롯되었지요. 자신의 월급을 떼어 등록금을 못낸 학생들에게 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의 병환이 심해지면서 간병을 위해 학교를 나가지 못하게 되자 퇴학 처리 되었어요. 억울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내 돈을 벌어야 하는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학교를 다닐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학교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과 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녔을까?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면 공부도 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야 장애인 야학에서 공부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배우고 싶은 데 공부할 수 없는 이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눔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돈이란 돌고 돌아야 하는 것, 나에게도 돌아오겠죠

동생들이 어느 정도 학교를 마칠 무렵, 제가 아낄 수 있는 옷값, 화장품값, 미용비 등 그 비용을 1년에 얼마를 정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 수입이 없어 기부하던 몇 곳을 중단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았답니다. 현재 제가 나눔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단체들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곳이거든요.

나눔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저는 대부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을 나누기 위해 학생학비, 장애인 야학, 의료보험이 적용받지 못하는 휘귀병환자모임, 인권단체, 시민단체, 노동정책과 대안을 연구하는 노동단체 등 물론 한국여성재단의 100인 기부릴레이도 참여했었지요.

일상의 나눔 레시피

행복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거예요.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여러 단체 활동가분들도 몸소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기술로, 몸이 건강하고 시간이 있으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나눔을 하면 되고요. 물질이 없으면 잘 되기를, 아프지 않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면 되지요. 그게 나눔이 아닐까요.

전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비 중 10만원을 구청의 사회복지과를 통해 두 가정에 각각 5만원씩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의 재활용품매수입, 광고수입, 장터수입 등으로 모아진 부수입으로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정, 한부모 가정 등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한 아주 소중한 나눔으로 기억합니다. 또 올 케언니와 저는 생일이 같은 달이에요. 늘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고 주고받는 생일선물을 이번엔 기부를 하자고 넌지시 물어봤더니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그래서 생일선물로 받은 돈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책임이라 생각해요.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나누고 적은 분들은 적은 대로 조금씩 나누고 서로 함께 살아가면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겠지요. 나눔을 통해 힘든 삶을 이겨낸 사람들이 또 나눔을 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겠지요. ♡

아줌마DJ의 세상만나기

마포FM공동체라디오의 권금상 DJ



취재/백진영 기획홍보팀



직접 대본도 쓰고 방송도 하고

서너 평 남짓한 작은 스튜디오. 헤드폰을 낀 디제이는 PD의 손짓에 맞추어 엔딩멘트를 하고, 마이크가 찾아들면서 엔딩뮤직이 흐른다. 이곳은 서교동의 마포FM공동체라디오. <랄랄라 아줌마>의 DJ 권금상 씨는 일주일에 한번 이곳에서 '아즈라엘'이라는 필명으로 아줌마, 여성들을 만나왔다. 지역 민간송출 라디오 마포FM은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연출도 하고 디제이도 한다. 그야말로 직접 방송을 만든다.

“지난 2월부터 했으니까 7~8개월째인가요. <랄랄라 아줌마>는 여성청취자를 대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프로예요.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사, 건강 등 다양한 소재로 만나는 코너예요. 때로는 아이의 입장에서, 때로는 엄마의 입장에서요.” 마포나 서대문 일부지역에서만 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파력의 한계가 있지만 꾸준히 청취자가 늘고 있단다.

유난히 고운 음색으로 조곤조곤 전하는 그녀의 목소리. 인터뷰 중 그가 전직 텔레비전 진행자였다고 고백했다. “짤랑 짤랑~ 짤랑 짤랑~ 으쓱 으쓱!” 아이들에게 친근한 <TV유치원 하나 둘 셋>의 이야기선생님, 하나언니였던 것이다. “옛날이야기쇼(웃음) 25년, 26년 전이니까요.” 그는 당시 유치원교사를 하면서 이야기 선생님이로 발탁되어 약 1년 반 정도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었다. 그 일이 그가 지금도 미디어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첫 인연이 아니었을까.

그 후에 남편을 따라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생활한 경험이 두 번째 인연이었다. 미국 생활 당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그는 단지 생활을 위해 시장을 가야했고 인종간의 긴장감을 몸소 느끼면서 차이와 차별을 경험했다.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곳도 마땅치 않았다.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가 한 일은 교포들을 위한 한국어교본 제작이었다.

두 번의 해외생활, 차별과 차이를 경험하고 살았지요

그가 생활한 두 번째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했다. 물론 그곳에서도 언어는 불가항력이었다. 네덜란드어라니... 하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오히려 영어로 우리와 소통하고자 했다.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경쟁이 아닌 함께 공존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으로 나이키를 신었던 게 부끄러웠단다. “미국에 갈 때는 지지 않으려고, 주눅들지 않으려고 챙겨갔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온 후 그는 대전에서 서울을 오가며 전공이었던 유아교육과 미디어를 공부한 끝에 <리아의 수학놀이>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다. 지금도 EBS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리아의 수학놀이>는 2005년 콘텐츠진흥원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권씨는 지금 서울YMCA어린이영상연구회 콘텐츠 팀장으로 일하면서 중학교에 미디어교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사회와 미디어와의 관계, 미디어가 세상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다르고 다양한지 아이들과 함께 얘기한다. 그 역시 이 사회가 탈북청소년들과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미디어속에 보여지는 여성들

의 성상풍화, 언론의 보이지 않게 조장하는 가부장적인 모습들에 날카로운 지적도 한다.

미디어로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하다

자원활동도 미디어나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한달음에 달려간다. 정서장애, 특히 새터민 아이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 모두 소외되고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미디어라는 매개를 통해 그들과 소통한다. 마포FM의 자원활동가들 역시 권씨가 언론재단이나 새터민 아이들에게 미디어교사로 활동했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주로 아줌마들이다. 미디어 속에서 자주 보는 역척스럽고 무식하고 뻔뻔스러운 아줌마가 아닌 포용력 있고 열정적인 아줌마들이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니 그것 또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열정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거나 하는 욕심은 자원활동가로서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한다. “도움을 준다고도 하지만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예요. 역효과를 내기도 하잖아요. 또 바라는 마음이 커지면 실망도 빨리 하게 되거든요. 자원활동가들을 대하는 생각도 그렇지요. 일회적으로 잠시 일손을 거드는 일로 치부해버린다면가 하는 거요. 아마 제가 더 도움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이들과의 만남으로 권 씨는 지금 또 한번 인생의 전환기를 준비 중이다. 논문 <미디어에 재현된 이주아동의 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를 탈고하느라 자원활동이 없는 날엔 국회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사회가, 우리들이 이주아동을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고, 일상적인 폭력 등 관계형성을 가로막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관한 작업이라고 귀땀한다.

논문을 마치면 그이겐 또 다른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배움을 책상 위의 연구로만 끝내지 않겠다는 당찬 포부로 내년쯤엔 사회적으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다른 인생설계에 도전할 예정이다. “사회적 책임? 뭐 그런 거랄까요?” 수줍게 말하는 그가 내년엔 또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지 나도 기대된다. W

대상(주)의 사회공헌활동

나눌수록 맛있는 ‘행복’을 전합니다

취재/기획홍보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마주한 밥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위안을 준다. 50여 년 동안 고객에게 밥상의 위안을 마련해 온 대상(주). 그 마음을 고스란히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인간존중의 기업윤리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주흥 상무(고객지원본부장)를 만났다. **—편집자 주—**

○ 대상은 5~60년대 대표적인 조미료 브랜드상품 ‘미원’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판매율을 자랑하던 미원, 그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브랜드로 소비자와 만나왔는데요

대상주식회사는 순수 국내자본과 기술로 1956년 설립되어 세계 일류의 발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식품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드 ‘청정원’ 잘 아시지만 대상기업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미원을 토대로 한 조미료사업으로 출발해서 현재 종합식품브랜드 ‘청정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식품사업과 바이오사업, 전분당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클로렐라를 대표로 하는 건강브랜드 ‘웰라이프’를 도입하여 건강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1971년 대상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활동은 2006년 3월, 청정원자원봉사단 창단 이후인데요.

1971년에 설립한 대상문화재단은 주로 장학사업 위주로 인재육성에 주력했다면, 대상주식회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돕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사회공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존에 각 사업장 단위 동아리형태로 운영되던 소규모 봉사 동아리를 정리해 청정원자원봉사단을 결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무료급식봉사, 도시락배달, 시설방문봉사, 난치병어린이 소원성취사업 지원, 나무심기, 환경정화활동, 일사일촌 농촌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농촌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해 타사와 다른 ‘대상’만의 사회공헌활동이 있으신가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1사1촌 운동에 동참해 부서와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 매월 정기적으로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문화생활 지원 등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나누고 있습

‘나눌수록 맛있는 행복’이라는 대상의 사회공헌 슬로건은 사내 임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나눔이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상의 경영이념과, 종합식품회사로서 맛있는 음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니다. 지난 5월 출시한 ‘순창 우리 쌀로 만든 고추장’의 원료인 국산 쌀을 순창에서 전량 구매하고 있으며, 같은 제품의 주원료인 고추도 순창에서 계약 재배를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문화 선도기업을 지향하는 국내 식품업계 선두주자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푸드뱅크 사업 참여를 통해 불우 이웃에게 연간 15억 원 상당(제조원가기준)의 청정원 제품 먹거리 지원과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자연학습장 운영 및 사업장 인근의 환경정화운동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품기업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매년 11월마다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어 발생한 5천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한국녹색문화재단에 기부해 저소득층 어린이와 장애인들을 돕습니다. 또한 매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에는 기아대책과 함께 25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를 제작해 전국의 빈곤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청정원의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세트’ 제작 행사를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정적인 혈액수급 및 범국민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휴가철에 ‘휴가 전 헌혈 먼저’ 캠페인을 주최하여, 전 그룹 계열사가 동참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함께 전국 각 사업장에서 헌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소아암 협회에 전량 기증하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재단은 해마다 ‘100인 기부 릴레이’라는 모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기업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복나눔 기부 릴레이’라는 자율모금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대표이사 1만원을 기부하고 다음 주에 두 사람을 추천, 계속 각각 두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06년 4월부터 10주간 진행, 1539명 참여)
맨 처음 기부 이끔이가 CEO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상명하복 식의 진행



주흥상무 (고객지원본부장)

가끔 직원들을 보면, 자기 삶에 대한 만족, 자부심이 덜한 것 같았는데, 자원활동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함께 활동을 하면서 동료애, 협동심도 생기게 되지요.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기업만큼 여성을 위한 일터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육을 짓게 되면 탁아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겨주는 곳이 있어야 직원들 역시 근무효율화에 도움이 될테니까요. 기업내에서부터 만족스런 환경을 만들어야 여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니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나눔의 기쁨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매월 급여의 천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우수리 제도,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을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사랑의 제안 등 많은 기부 정책에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 대표브랜드 추진을 위한 회사 내 설문조사 등 절차에 있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표사회공헌 설문조사를 실시, 다양한 의사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의 행복과 사회에 공헌하는 대상의 경영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 여성출산장려지원과 전국위기청소년지원사업 등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는 전담부서나 경영진의 뜻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의 의사 또한 중요하기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까지도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브랜드 결정과정의 민주성과 참여증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업 내 문화는 어떤가요? 여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를 소개해주신다면?

저출산 대응정책을 대표사업 영역으로 설정하면서, 사내 육아지원 및 복지제도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예전엔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문화였지만 요즘은 당당하게 임신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리지요. 직장내 여성들을 위한 배려와 제도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사업장 내에 모유착유실을 설치하여 아이를 가진 직원들을 배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을 위한 것만큼 남성들도 함께 해야 하지요. 또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는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족사랑 Day’, 건강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하루 이상 쉬 수 있도록 하는 ‘Refresh-Day 제도’, 야근을 없애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정시 퇴근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제를 폐지하고 부서장급 이하 사원은 모두 매니저로 통일하는 수평적 호칭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호존중과 평등 그리고 부드러운 문화를 중요시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는 기업 내

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표사회공헌활동 분야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현재 여성이 주 고객인 만큼 당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사회공헌활동의 측면에서도 저출산 대책과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인 만큼 요리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요리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나눔의 숲 체험교실 ‘파이팅 맘!’ 캠프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다면? 한국여성재단, 한국녹색문화재단과 함께한 ‘파이팅 맘!’ 캠프는 여성가장 가족들에게 숲이라는 공간을 통해 휴식과 안정, 편안함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다양한 협력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정을 나누고 작은 꿈과 희망을 가족애로 맺어주는 산림 체험형 캠프입니다.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동

안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아이가 클 때까지 한 번도 가족여행을 나온 적이 없었던 여성가장과 가족들에게는 ‘파이팅 맘! 캠프’가 더없이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 이벤트성,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현황에서 벗어나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기업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이 얻는 최대 효과는 이 활동에 참여하는 임직원 개개인이 느끼는 뿌듯함입니다. 그 뿌듯함과 따뜻해진 가슴을 안고 돌아오면 내 이웃들에게 더욱 큰 보탬이 되기 위해 회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역사가 이제 4~5년차로 짧지만 대상은 지난 9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사회공헌과 이웃돕기 활동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대상의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을 기대해본다. W



나의 즐거운 여행이 지구를 병들게 한다면?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글/서선미 여행협동조합 MAP

얼마 전 초등학교 문집을 넘기다 보니 ‘이 다음에 꼭 하고 싶은 일 5가지’란 코너가 눈에 띄었다. 당시 나의 1순위는 ‘세계여행’이었다. 어릴 적 꿈이 나를 이길로 이끌었나 싶어 피식 웃으며 뒷장을 넘겨보니 내 짝꿍도, 그다음장에는 나랑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던 그 녀석도 세계여행이 꿈이었던 듯했다. 모두들 변치 않은 어릴 적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요즘 싸이 일촌파도를 타다보면 여행 안다녀 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여행사진을 올리는 것이 대세다. ‘여행’은 모두의 꿈이고 로망인가 싶다.

하지만 국가별로 정렬된 사진 폴더 속에 고급호텔에 묵으며 최고급 관광패키지를 이용하고 면세점 등에서 쇼핑을 즐기는 ‘행복한’ 사진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다. 많은 이들이 고급화된 소비의 일종, 부의 척도, 삶의 경제적 여유와 밀접한 방식으로 해외여행을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 이는 여행을 통해 소비하는 금액이나



참가자 개인의 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아니라 여행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다. 그렇다면 여행지에서 일하는 혹은 그 곳에 사는 지역민들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 나의 행복과 무슨 상관인지? 게다가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즐기는데?’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잠시 머무르는 그 여행지는 다른 누군가의 집이고 생계를 위한 일터일 것이다. 흔히 여행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지친 삶에 있어 원동력이라 생각하지만 나의 자유와 휴식이 다른 누군가의 불행과 희생의 대가라면 어떠한가. 과연 나는 여행이 진정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소비를 목적으로 한 관광개발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원주민, 자본에 의해 인권 침해받는 사람들, 파괴된 생태계.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여행인가.

새로운 여행은 가능하다, 대안적인 여행은 없을까? 지속가능한 여행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새로운 여행을 상상하고, 실천해온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

겨울 하자센터 내 〈지구별〉이라는 작은 공간에 MAP이란 이름의 조직을 만들었다. 지속가능한 여행을 꿈꾸는 여행자들의 네트워크 MAP은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고 실천하는 여행자들의 힘을 믿고 여행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우리는 인터넷 클릭 한번이면 세계 각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이동 할 수 있다. 세계화 속에서 무엇이든 쉽고 빨라지고 시공간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진 것이다. 하지만 그 흐름에 침식되어 떠밀려 나가듯 지구환경이 파괴되고 훼손되어 가고 있다. 경제, 자연, 분쟁, 다문화, 인권 등 지구가 안고 있는 다양한 이슈는 ‘여행’이라는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이들 문제는 여행이 있기에 풀어야 할 과제이면서도 여행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나만의 휴식과 즐거움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여행이란 행위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하면서도 나의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그 대안으로 공정여행은 지구를 살리는 여행, 그리고 만남과 나눔이 살아있는 ‘관계맺음’ 여행이며 MAP이 추구하는 여행이다.

MAP은 상업적 욕망이 이끄는 기존의 관광문화를 변화시키고 지역 NGO/NPO와 협력하여 여행자들과 지역민 그리고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공정여행 수칙이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 보다는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고, 대형숙박업체보다는 지역민이 운영하는 숙소와 음식점을 이용하고 현지 언어와 문화를 한 가지씩 배우는 등의 것이다.



배낭여행자들 중에는 ‘어? 이거 내가 하는 여행이네!’ 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가난한 여행자는 공정여행자가 되기 쉽다. 나부터도 그렇다. 아끼다 보니 자연스레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저렴한 숙소와 음식점을 이용하고 최대한 건거나 지상에서 움직이는 교통편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싸다고 모두 공정여행은 아니다. 공정여행은 ‘최저가 여행’이 아니라, 여행에서 쓴 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묻는 여행이다.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쓰는 돈이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고 현지인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묵는 호텔의 노동자들, 가이드, 포터들 등 여행을 만드는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 환경과 보험 등을 제공하여 ‘여행자와 지역민,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가치 있는 여행’이다. 나의 소비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여행, 숲과 동물들을 지켜주는 여행, 여행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여행이어야 한다. 나를 만나고 너를 만나서 우리가 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한 여행, 그것은 결국 나눔이다.

지속가능한 여행, 그것은 나눔

지리산 둘레길을 따라 작은 마을들이 있고 그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신다. 그 외진 동네에 젊은이들이 살 리가 만무

하다. 가끔씩 지리산을 찾는 여행객들이 적절한 마을 어르신들의 반가운 손님이 다. 이렇게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시내 대형 숙박업소 대신 지리산 할머니 댁에서 묵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종일 벌에 나가 받을 때면 하루 평균 임금이 2만 5천원. 여행객이 하룻밤 민박을 하면 3만원. 여행자가 지불하는 경비가 마을 공동체의 중요 수입원이 되고 이는 현지인들의 귀한 수입인 동시에 주변 지리산 길을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사회사업 기금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여행자는? 외할머니의 정이 느껴지는 아랫방에서 하루 묵으면서 씁사래한 향긋함이 물씬 나는 시골 밥상을 경험한다. 나의 여행이, 그리고 나의 소비가 나눔이 된다.

신들의 땅, 네팔 또한 새로운 방식의 여행이 가능한 곳이다. MAP은 이주민 노동자를 지원하는 네팔 지역 NGO와 여성과 아이들을 돕는 사회적기업 ‘3sisters’와 함께 한다. 어르준 씨와 함께하는 카트만두 여행은 네팔인의 구수한 한국어 말솜씨에 여행자들이 배움을 잡는다. 그가 운영하는 여행사는 한국에서 귀한 한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고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고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행자들이 현지인이 들려주는 생생한 네팔 이야기를 한국어로 듣고 이를 위해 지불하는 가이드비가 자연스럽게 귀한 이주노동자들을 돕게 되는 셈이다. 히말라야에는 슬리퍼를 신고 몸무게의 두세 배가 훌쩍 넘는 짐



을 신고 산을 오르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인권침해를 당하는 포터들이 참 많다. ‘3sisters’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앞장서는 트레킹 전문 여행 업체이자 NGO이다. 이들은 네팔의 사회문화적 제약에 갇혀 있는 여성들을 사회 속으로 끌어내고 지지하기 위해서 트레킹 가이드 훈련을 비롯하여 여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산악지대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조하고 시설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킨다. 여행자는 중요한 선택의 의무와 책임을 가졌다. 낮은 임금을 주고 포터와 가이드를 고용해 다른 이의 인권과 행복, 그리고 사회 부조리를 눈감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즐거운 여행이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도록 여행 제공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내가 지불하는 여행 경비가 다른 누군가를 돕고 지지하는 가치 있는 나눔이 되도록 할 것인가. 어떤 쪽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하면 선택은 쉬워진다.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다, 가는 곳마다 목적지에 도장 찍듯이 그야말로 사진 박는(?) 여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꺼이 공정여행을 경험하고 돌아왔지만 그 때의 감동과 분리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 있지는 않은가.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법한 얘기다. 하지만 그 장소와 그 곳 사람들에 대한 이해 없이 건물과 풍경만 뒤로한 사진은 감동이 없기 마련이다. 거기서 거기란 생각에 이르게 되면 사진도 잘 안 찍게 된다. 설렘과 새로움으로 가득했던 여행이 그저 그런 진부한 일상이 되는 순간이다. 여행이란 꼭 멀리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다.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여행일 수 있다. 삶이 곧 여행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도시 서울을, 대한민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동안 몰랐던 재미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일상에서 일상을 벗어난 생활의 발견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고 ‘여행’을 혹은 ‘공정함’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눔’이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말에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대신에 집 앞 골목을 거닐며 산책을 하거나 평소에 마시던 커피 대신 공정무역 커피를 마셔보면 어떨까. 일회용 컵 사용 대신 자신만의 예쁜 컵을 가지고 다니고 대형 마트 대신 재래시장 구경에 나서보면 그 재미 또한 쏠쏠하다. 여행과 일상을 넘나들며 실천하는 나눔이 야말로 공정여행의 참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

만 그 때의 감동과 분리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 있지는 않은가.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법한 얘기다. 하지만 그 장소와 그 곳 사람들에 대한 이해 없이 건물과 풍경만 뒤로한 사진은 감동이 없기 마련이다. 거기서 거기란 생각에 이르게 되면 사진도 잘 안 찍게 된다. 설렘과 새로움으로 가득했던 여행이 그저 그런 진부한 일상이 되는 순간이다. 여행이란 꼭 멀리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다.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여행일 수 있다. 삶이 곧 여행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도시 서울을, 대한민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동안 몰랐던 재미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일상에서 일상을 벗어난 생활의 발견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고 ‘여행’을 혹은 ‘공정함’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눔’이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말에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대신에 집 앞 골목을 거닐며 산책을 하거나 평소에 마시던 커피 대신 공정무역 커피를 마셔보면 어떨까. 일회용 컵 사용 대신 자신만의 예쁜 컵을 가지고 다니고 대형 마트 대신 재래시장 구경에 나서보면 그 재미 또한 쏠쏠하다. 여행과 일상을 넘나들며 실천하는 나눔이 야말로 공정여행의 참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

공감_ 타인에 이르는 가장 선한 길

글/김형경 소설가

아시시 역에서 기차를 내렸을 때, 프란체스코 성당을 중심으로 한 중세 도시 아시시는 저쪽 언덕 위에 하얗게 빛을 발하면서 솟아있었다. 아시시는 전체적으로 평원에 자리잡은 도시였지만 중세 도시가 보존되어 있는 그곳은 유독 높은 구릉지대여서 산처럼 불쑥 솟아 있었다. 저런 지형위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외세에 의해 파손되지 않고 지금까지 원형을 보존할 수 있었겠구나 싶었다. 막상 아시시 내부로 들어서면 건축물들조차 겹겹의 성벽 구조로 지어져 말 그대로 물샐 틈조차 없어 보였다.

성 프란체스코 성당은 1998년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마당이 아래로 움푹 꺼져 가장자리로만 겨우 다닐 수 있게 나무통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무 통로를 아슬아슬하게 디디면서 마당 쪽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깊

이 가라앉았는지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성당 건물 전체가 비계와 휘장으로 덮여 한창 보수 중이었고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곳은 1층과 지하뿐이었다. 폐쇄 중인 2층에는 프란체스코 성인의 생애를 그린 조토의 프레스코화가 있다는데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해서 유독 아쉬웠다.

이탈리아에는 “프란체스코 사원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하느님도 모른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함께 지내던 유학생은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프란체스코 성당을 훼손시킨 지진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성당 지하에 모셔진 프란체스코 성자의 묘에 가보니 그 말이 사실인 듯했다. 지하에는 참배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참배객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프란체스코 성자의 제단에

초를 켜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기부금함에 돈을 넣고 양초를 사서 제단위에 올렸고, 관리인은 나중에 그 초들을 차례차례 사용할테니 우선은 놓고 가라고 관람객들에게 당부하고 있었다. 나는 삼십 분 이상 그곳에 머물렀는데 조금 전에 관람객들이 올린 초들이 그대로 다시 판매대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말았다. 초는 제단과 판매대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끊임없이 돈을 끌어모으는 듯했다. 평생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설교와 고행, 철저한 가난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그 수도회가 이제 와 그토록 돈을 끌어모으는 사실이 아이러니컬했다.

성당 바깥으로 나오자 14세기에 지어졌다는 그 도시의 골목들에서 오히려 조용한 성스러움이 느껴졌다. 성당 앞 선물가게들을 둘러보다가 프란체스코의 생애를 그린 조토의 그림이 담긴 도록을 한 권 샀다. 거리를 걸으며 그것을 넘겨보는데 그 중에 〈새들에게 설교하는 프란체스코〉라는 그림이 오래 시선을 끌었다. 프란체스코 성자는 고개를 숙인 채 새들을 내려다보며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의 발 앞 땅바닥에는 열 마리 정도의 새들이 그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지지자와 신도를 모았던 비밀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에도 그토록 공감하는 프란체스코의 태도가, 부유한 중세 교회를 외면한 채 가난한 자들의 삶에 그토록 공감했던 방식이 많은 지지자를 모았을 것이다.

신화나 전설을 보면 모든 성인, 종교 지도자, 신화 속 인물들은 반드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제는 그 이유에 대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은 고통의 담금질 속에서 인간 정신이 성장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때문일 것이며, 또 한가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획득하도록 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와봐야 나중에 그들이 보호해야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내면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정신의 어둡고 깊고 탁한 영역에까지 공감할 수 있어야 진심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프란체스코 성자가 가난과 고행을 자처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공감은 현대 정신분석의나 심리상담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 자질이며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 공감은 ‘환자의 내부 경험에 일관되게 초점을 맞추는 것’ 을 의미한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가끔 대학에 특강을 나가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

“대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왜들 그렇게 요란을 떠는 거죠?”

그 학생은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우울해하고, 근거 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특정한 사물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때 전문의는 ‘빨리 연애해서 실연이라도 당해보라’ 고 충고한다고 한다.

공감 능력은 인간 감정의 다채로운 영역에 대해 세밀하게 체험한 위에서 획득되는 능력일 것이다. 내 속에 억압되어 있는 분노에 대해 이해가 없다면 타인의 분노에 대해서도 헤아려볼 수 없다. 내 마음의 얼룩덜룩하고 울퉁불퉁한 면들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타인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공

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처입은 자가 치유한다”는 텔포이 신전의 신탁은 모든 종교 지도자나 신화 속 주인공이 왜 반드시 고난과 순교의 시간을 뚫고 나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정확한 명제일 것이다.

공감능력의 결여에 대한 또 한가지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 한 초등학생이 친구 부모가 이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덧붙이더라고 했다.

“영수는 자기네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데 왜 자기가 그렇게 난리를 치지?”

그 초등학생은 친구의 불안이나 고통에 공감할 만한 경험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공감능력이 가장 둔한 부류는 나르시시스트라고 기록된 글을 본적이 있다. 그럴 것도 같았다. 항상 자기만 옳고, 자기 방식만 주장하고,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이들은 타인과 소통하지 못한 채 타인을 자기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다.

미켈란젤로와 카라바조를 본 것만으로도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의 반을 얻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카라바조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도 그의 작품을 되도록 빼놓지 않고 보려 했다. 그의 회화 작품인 〈성 가족〉에서는 어린 나이에 귀족 가문의 화공으로 팔려간 미켈란젤로가 꿈꾸었을 가족의 환상을 보는 듯 했다.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은 그가 인식하는 모든 세상을 압축해 놓을 것 같았다.

그의 조각 작품 중 남성미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다비드상〉이나 권위와 위엄이 절로 느껴진다는 〈모세상〉도 아름다웠지만 내 발길이 오래 머문 작품은 ‘노예상’들이었다. 그 노예상

들은 귀족들의 무덤에 장식되던 조각상들이라고 했다. 〈배고픈 노예〉, 〈노예 아틀라스〉, 〈잠깐 노예〉 등의 제목이 붙어 있는 그 작품들은 눈길이 닿는 순간 곧바로 생의 어떤 조건들과 맞닥뜨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 직설적인 감정의 충격에 놀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 작품들에는 교황이나 귀족 가문을 위해 작품을 제작해야 했던 미켈란젤로의 자의식이 표현되어 있는 게 틀림없어 보였다.

그런 면에서 네 점의 〈피에타〉도 특별했다. 〈피에타〉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은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다.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무릎 위에 눕혀 놓고 고른팔로 어깨를 받치고 있는 형상의 조각작품이다. 간혹 특별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보다 마리아가 더 젊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예수상에 미켈란젤로 자신이 투사되어 있다면 그 성모는 틀림없이 미켈란젤로가 사랑했던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한다.

내게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미켈란젤로가 25세 때 첫 번째 〈피에타〉를 제작한 후 노년에 이르러 다시 그 주제를 잡고 세 점의 〈피에타〉를 제작했다는 점이다. 죽은 예수를 안아 일으키는 성모 마리아. 그 모티브를 잊지 않고 있다가 노년에 이르러 반복해서 형상화한 노화가의 마음 깊은 곳을 더듬어 보는 일이 특별했다.

네 점의 〈피에타〉에서 예수의 모습은 점차 달라진다. 첫 작품에서는 성모의 무릎에 누워 있던 예수가 그 다음 작품에서는 무릎이 꺾인 자세로 마리아와 똑같은 키높이로 서 있다. 아마도 그것은 미켈란젤로가 어머니, 연인으로 이어지는 여성들과 맺어온 관계에 대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런 눈으로 보면 마리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감지된다. 첫 작품의 마리아는 딱 스물다섯 살짜리 처녀처럼 예쁘기만 한 모습이다. 그 처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듯한 표정이다. 시간이 갈수록 마리아의 표정은 편안하고 부드러운지면서 연민과 슬픔의 감정들이 세밀하게 살아난다. 특히 밀라노 〈피에타〉의 마리아는 생의 모든 국면들을 한데 모아 두터운 솜에서 오래 끓였을 때 마지막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표정을 하고 있다. 아마도 미켈란젤로가 그때쯤에야 여성의 진정한 내면과 닿아보았던 게 아닐까 싶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도 카라바조처럼,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절연한 곡선이 흐르고 있었고, 그 곡선의 선마다에서는 묘한 감정의 기류들이 전해지곤 했다. 온기와 피가 흐르는 듯한 생생함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미묘하고 다채로운 인간의 감정들이 그 대리석에서 솟아나곤 했다. 그의 모든 작품에 〈피에타〉라는 제목을 붙여도 무방하겠구나 싶었고, 바로 그 〈피에타〉의 마음이 공감이구나 싶었다.

공감은 18세기 미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었다고 한다. 예술작품에서 받는 감동이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마음과 공감하는 순간의 상태일 것이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창조한 사람의 마음에 곧바로 감응하게 만드는 힘. 그것도 시공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강력한 힘의 비밀이 ‘공감’일 것이다.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공감 역량은 유아가 아직 말을 하기 이전에, 엄마와 아기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 작용

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도 한다. 공감은 전의 식적으로, 조용하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예술작품을 대하는 나의 기준은 ‘감동’이었다. 선입견이나 편견없이 어떤 작품을 대할 때 내면에서 올라오는 울림을 느끼는 것을 좋아했다. 그 울림이 심장이나 두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감정과 신체에 어떤 파장을 만들 때, 그 떨림을 세밀하게 느껴보는 것이 내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이었다. 바로 그 떨림의 지점에서 공감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다. 어떤 그림 앞에서 놀란 듯 걸음을 멈출 때, 내면에서 올라오는 떨림을 느끼며 한 작품 앞에 오래 서 있을 때, 그런 때는 또한 무의식의 어느 지점과 조응하고 있을 것이다.

강렬한 공감을 이끌어낸 많은 작품이 있었지만 그 중 특히 인상적인 것은 오클랜드 미술관에서 본 회화 작품이었다. 처음 봤을 때 받은 인상이 하도 강해서 그 근처를 지날 때면 수시로 들러서 그 작품을 보곤 했다. 그 때 사용했던 수첩에는 작품에 대한 정보는 없고 다만 당시의 인상만이 간단하게 메모되어 있다.

“불길한 붉은 석양이 퍼지고 벌써 달이 떠올랐다. 해가 지는 쪽을 향해 배 위에 앉은 다섯 여인.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다섯 여인의 태도가 인상적이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부짖는 여인이 있고, 수평선 끝을 향해 아주 멀리까지 시선을 밀어내는 여인이 있고, 수곳한 태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 있다. 그 상황에서든 빼어나게 단정한 자세, 의연한 눈빛을 허공에 두고 있는 여인이 있고, 발치에 앉은 개를 쓰다듬는 여인이 있다. 여인들은 모두

공감은 중립적이고 비판단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내면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는 것이라 한다.

한 인간의 비통, 애착, 분노…….

그리하여 인간이 그토록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는 상태이다.

인정과 지지 역시 공감이 전제되어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덕목일 것이다.

옆모습은 보이고 있고 화면 앞쪽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개 한 마리가 천연덕스럽게 었드려 있다. 털에 더러운 먼지가 많이 묻은 개는 지쳐 보이기도 한다. 화면 위쪽에서부터 덮이는 어둠이 벌써 그녀들의 어깨까지 내려와 있다.”

처음에는 그림 속의 다섯 여성에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서로 다른 태도를 본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들 중의 아테나, 헤라, 아르테미스, 데메테르, 페르세포네가 있었고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보였다. 여러 차례 그림을 마주하던 어느 순간, 내가 저 그림을 통해 나의 내면을 보고 있었구나 싶은 깨달음이 왔다. 무엇보다 먼저 그 배가 좌초된 게 틀림없다고 믿는 나의 불안감을 보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배위의 여성들이 나의 내면에 깃들여 있는 서로 다른 여러 자아들에 가까워 보였다.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아테나, 헤라, 아르테미스, 데메테르, 페르세포네를 더 명료히 자각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보고 또 보았을 것이다.

인간심리와 행위의 배면에 대해 어설픈 이해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한동안 그런 고민을 했었다. 친절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필요한 행동일 뿐이고, 칭찬은 소극적 자기심이거나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방어 의식이고, 연민이란 타인을 가엾게 여기는 우월감의 표현이며, 선행이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보험상품일 뿐이며…….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대체 타인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계 맺어야 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 끝에 만난 단

어가 공감이었다.

공감은 연민이나 동감과도 구분되는 감정이라고 한다. 연민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전제로 한 감정이고, 동감은 객관적 태도를 잃고 상대방에게 휩쓸리기 쉬운 감정이다. 반면 공감은 중립적이고 비판단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내면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는 것이라 한다. 한 인간의 비통, 애착, 분노……. 그리하여 인간이 그토록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는 상태이다. 인정과 지지 역시 공감이 전제되어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덕목일 것이다.

“자기 마음에 고요히 머물러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에도 잠시 머물 수 있다.”

어디서 읽고 옮겨놓은 건지 모르는 이 구절이 메모지 한켠에 있었다. 타인을 이해하고 관대하게 대하고자 마음먹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관용구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표현 역시 타인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공감의 상태를 지칭할 것이다. 인간의 부정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고 힘겨운 긍정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모두 그러하다는 자각과, 그 자각을 바탕으로 하는 공감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W

김형경의 심리여행에세이 《사람풍경》 중에서
위즈덤하우스 출판사

이 글은 소설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 심리치유에세이 《천개의 공감》의 저자 김형경님이 작품기부를 해주셨습니다.

NEWS

딸 지킴이 한·국·여·성·재·단

여성재단, 삼일투명경영대상 여성부문 대상 수상



9월 1일, 비영리기관과 함께 하는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한국여성재단이 여성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온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삼일미래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삼일미래재단은 서류접수를 포함 총 네 차례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수상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날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가, 장애인 부문 대상은 밀알 복지재단이 각각 수상했다.

여성재단 조형 이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여성을 위한 공익재단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그 위상에 맞게 투명한 운영을 통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읽는다

여성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신청단체 방문기

2009년 여성, 여성단체, 여성시설은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성 활동가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단체 및 시설 방문을 통해 경제력 세계 12위권과 대비되는 대한민국의 고단한 여성현실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태평양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2009 여성단체·시설개보수사업은 총 2억5천의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순 기능 중심의 목욕탕 및 화장실을 ‘아름다움과 건강이 시작되는 행복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목욕탕 및 화장실 개·보수사업(Happy Bath Happy Smile)’과 단체 및 시설 특성에 따라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대안적인 휴게실 설치 사업(ARITAUM in U)’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의 특별함이 곧 권력의 상징이 되어 버린 시대에, 열악하다 못해 제 기능을 상실한 화장실, 휴게 공간 등은 2009년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대변하는 듯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여성재단과 태평양복지재단은 8월 중순부터 전국 30곳의 여성단체, 시설을 방문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곳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단체, 시설을 지원하여 창조적인 작업과 쉼의 공간, 일상의 편안함을 누리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그 의미는 정말 크다고 하겠다. 태평양복지재단의 아낌없는 지원과 활동가들의 열정으로 더 이상 고단함이 묻어나는 곳으로서의 공간이 아닌 활력과 empower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多문화多함께, 보고대회, 무지개빛 축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후원하는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다문화다함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 생명보험협회 이우철 회장)의 후원으로 전국의 121개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총 4,166명의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문화다함께’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9월14일(월)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결과보고대회는 함께 했던 결혼이주여성관련 단체 및 이주여성들이 참여해 그동안의 활동을 영상, 연극, 노래로 들려주며 서로 격려하는 자리였다.

최광기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영상을 통해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 함께 추억을 나누고, 다문화가정이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보사이트 망고넷(www.mangonet.kr)의 소개, 생태관광통역안내사 교육활동소개, 결혼이주여성의 시낭송무대를 연출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사단의 공동창작극, 여성문화팀의 신나는 노래와 댄스로 회의장 가득 모인 참석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다함께’ 사업은 지난 1년여 동안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창업훈련, 가족통합 및 다문화교육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건강지원을 위한 검진 제공 및 질병예방·산모교육 등의 건강교육을 제공하였고, 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마을(약칭 아이다마을)을 마련하여 새로운 다문화 지역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위드멘토’ 주인공들, 한자리에 모이다!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 프로젝트 ‘위드멘토’ 졸업식

지난 1년 동안 진행됐던 G마켓(대표이사 : 구영배)이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자녀학습지원 프로젝트 위드멘토 사업이 9월 30일에 막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2일에 이화여대 이상봉홀에서는 서울과 경남에서 활동했던 대학생 멘토와 다문화가정 자녀 멘티가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활동을 추억하고 감동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우수한 멘토와 멘티를 시상할 때는 다 함께 기쁘게 축하해 주었다. 이 날 행사는 다문화가정 자녀 멘티의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였으며, 가족사진을 촬영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함께 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활동기간동안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를 그리며 서로의 마음을 쪽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추억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가족사진촬영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관심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씨네21의 사진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흥주 작가가 직접 다문화가족들의 사진촬영에 재능나눔을 해주었고, 온라인사진관 포토큐브는 사진인화 및 액자를 협찬했다. 또한 경희대 청록태권도어린이선범단은 멋진 태권무를 선보였으며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이원식 선생님의 레크리에이션으로 한층 즐겁고 신나는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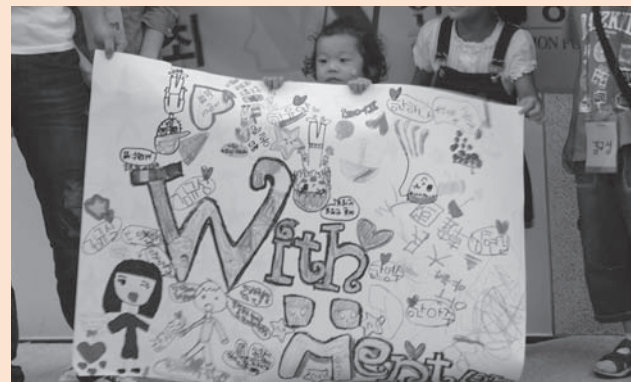
이주여성친정방문 날(NAL)자, 10월에 태국을 향해 날(NAL)다! 삼성생명이 후원하는 2009 '날(NAL)자' 프로젝트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도 매일 고향생각이 나고, 부모님과 친척들이 보고 싶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을 함께 만나서 추억에 남는 아름다운 여행이 되었어요” **에르덴 출롱** (08년 날자 참가자)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NAL자>는 바쁜 일상생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 후 친정에 갈 수 없었던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생명(대표이사사장:이수창)의 후원으로 올해까지 3년차 기획,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도 아내, 엄마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다. 날자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가족들과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고, 남편과 아이에게는 아내와 엄마나라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상호 이해를 돕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년 동안 필리핀, 베트남, 몽골의 방문을 지원했던 <NAL자>는 올해, 태국의 결혼이주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친정방문 가족을 선정하고 9월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총 7박8일의 일정으로 친정방문을 하게 되며, 현지에서는 친정방문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친정방문 소회나누기, 현지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대학생들이 서포터즈로 함께 참여하여 국제활동을 함께 체험하게 된다.



따뜻한 도움, 너무 소중했습니다!
여성건강지원사업사례를 소개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여성건강지원사업은 여성가장, 여성단체활동가를 대상으로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박성옥님은 긴급의료비지원으로 자궁근종적출 수술을 받고 완쾌되어 지금은 다니던 직장 에 복귀했다. 박성옥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세 번의 이유없는 해고, 노동조합에서 길을 찾다
내 나이 서른한살 때 갑자기 남편이 간암으로 운명을 달리한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다섯살 이었는데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돌봐 주셔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혼자가 된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집 근처에 있는 기아자동차의 용역회사가 사람을 모집한다고 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에는 월급으로 8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없다고 하면서 월급이 7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무실에 가서 따졌더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가만히 있던 터라 용역업체 사장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지요. 그 뒤에 용역업체에서 두 번의 해고와 하청업체에서 한 번의 해고를 당했습니다. 일을 찾던 중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부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뒤에 경기지부로 와서 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하거나 조직되어 있는 용역업체 소속의 조합원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여성재단의 의료비지원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언제였나요?
서울지부에서 일을 할 때의 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때마다 배가 너무 아프고 양이 너무 많아서 옷을 적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자궁암 검사를 받았고 자궁근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1년에 한 번씩 검사했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자궁근종이 너무 커져서 자궁적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전에 검사를 받을 때만 해도 나이가 있으니까 기다려 보라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수술을 하라고 하니 병을 키운 게 아닌가 많이 속상했습니다. 다시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빈혈이 심하고 근종도 커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수술을 했지요.

• 여성재단이 있어 수술이 두렵지 않았어요
검사를 받고 수술 날짜를 잡아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한국여성재단에서 온 팩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여성가장, 활동가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감 날짜가 얼마남지 않아서 서둘러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 더 많은 여성에게 건강지원을!
퇴원 후에 한번 병원에 가서 실밥 빼고 간단하게 소독하고 왔을 뿐 그 이상 치료를 안했습니다. 워낙 건강 체질이라서. 요즘은 매달 하던 생리도 없고 배도 아프지 않아서 좋은데 갱년기 때문에 몸이 더웠다, 열이 올랐다는 반복해서 조금 힘이 듭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갱년기 여성에게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술비 외에 치료비(약이나 물리치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 받을 수 있겠지요. 한국여성재단,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여성재단 10년을 함께 해주세요

한국여성재단의 2009년은 창립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기부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온 10년은 보람과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과 함께, 여성 활동의 현장에서 배우고 일하겠습니다.

★회원이 되는 방법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에 방문하여 회원 가입 후 나눔참여를 클릭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나 메일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예금주:(재)한국여성재단
국민은행 079-01-0405-971
농협중앙회 369-17-005283
우리은행 500-050638-13-001

(재)한국여성재단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tel .02-336-6364 fax. 02-336-6459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그녀들에
대한
오래된 농담
혹은
거짓말

김현아 지음

그곳에 가면 그 여자가 있다, 두번째 이야기

부여_삼천궁녀, 소서노 | 진주_논개 | 밀양_야랑 | 남원_이화중선, 박초월 | 고창_진채선
목포_박화성, 이단영 | 광주_정신대 할머니 | 전주_최명희 | 통영, 평사리, 원주_박경리

초미

“나보다 먼저 살아갔던 여자들의 이야기는 예상을 뒤엎고 에너지 넘치고 유쾌합니다. 조건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갔던, 용감하고 명민했던 그녀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자 / 김현아 로드스쿨라 대표교사

